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대화·현장행정...서민생활 안정

서구



한가족되기·취업 알선 호평 신·구도심 양극화 해결 속제

제감사장은 낫다는 데부터 출발한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은 자매결연을 통해 후원자와 수혜자를 연결해 주며 지난 2011년

김종식 서구청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개발'을 가장 큰 구정 목표로 삼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민생활 안정 정책 등을 통해 올해는 구정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결실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김 청장은 각 동별로 구정보고회 등을 개최해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한편, 현장 중심의 직소민원실과 올해 신설된 '생활민원 1·2·3 처리제'로 주민에게 친근하고 도움이 되는 구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빈약해진 구 재정을 구청사의 매각, 국·시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시킨 점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서구민 취직시켜주기운동 등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비용 증가에도 서민들의

300여명이던 후원자가 올해 들어 1400여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도 2200여명에 이르며 수혜액도 매월 7500만원이 넘는다.

이 밖에 관내 180여 기업체와 인력채용 협약을 체결,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연결하는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도 지금까지 1800여명의 주민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며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행정과 금융,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무·금융·풍암지구 등 신도심과 양동, 농성동, 광천동과 같은 구도심 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여기에 올해 초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죽음을 생김 불통의 이미지를 해소해야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김 청장은 "양동·농성동 등에 현지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해 내로 마무리해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민속원사업과 민원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남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속도 RDF사업·구청사 매각 시급

성 등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구는 부족한 지방재원을 충당하기 위

최영호 남구청장은 민선 5기 3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민결정형 행정 시스템'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남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 중 하나인 정책 결정권한을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사로의 이전과 구청사 부지 매각, 다목적 체육관 부지 확정 등 관내 주요 사항들을 추진했다.

전국 245곳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8) 가운데 이런 정책결정 시스템을 행정제도로 안착시킨 지자체는 남구가 유일하다.

최 청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의사를 주민에게 결정하도록 한 뒤부터, 주민 간 마찰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게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국비 조달을 통한 다목적 체육관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 '푸른길 도서관'조

해 정부 공모사업에 집중할 결과 오는 8월 준공할 주월동 푸른길 도서관(사업비 45억원)과 9월 착공 예정인 월산동 남구 장애인 복지관(사업비 45억원), 2015년 3월 준공 예정인 진월동 다목적 체육관(사업비 165억원) 건립 사업 등 지난 3년간 총 35건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0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촌동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사업, 신청사 입주 업체 부진과 3차 공개 입찰 후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매각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은 차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최 청장은 "문화 교육 특구로서의 남구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차후 신성장 동력으로 양과동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성장시켜 관련 기업들의 입주와 이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 등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북구 풍향 2구역 재개발 정비 초고층 아파트 12개동 짓는다

광주시 북구 풍향 2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24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 풍향 2구역(풍향동 12-1번지 일대) 5만5804㎡ 부지에 22층 높이(12개동·9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

앞서 지난 19일 북구는 풍향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주택개발사업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다.

세대별 면적은 ▲84㎡(639세대·25.4평) ▲71㎡(125세대·21.4평) ▲59㎡(112세대·17.8평) ▲36㎡(84세대·10.8평) 등이다. 36㎡ 세대는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

풍향 2구역은 광주교대·조선대·전남대 등 각 대학이 인접해 있는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구는 8월 초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을 한 뒤 11월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초 이주·철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재개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 23일 UN사무국 폴 한센 국장이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광주-UN 공동프로젝트인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과 EPICS 포럼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호남대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서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대폭 완화

광주 서구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구는 최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올해 말까지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최

저생계비 150%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사회복지담당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로 추가 혜택을 받을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유스리더십·에픽스포럼 준비상황 퍼펙트"

광주 방문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 폴 한센 국장

"광주UN대회조직위가 준비하고 있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 에픽스포럼(EPICS포럼) 프로그램은 아주 잘 짜여 있으며, 운영시설도 어느 나라 보다 우수하다."

지난 23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N대회)조직위원

회와 UN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YLP와 에픽스포럼 준비상황을 점검한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 폴 한센 국장이 "모든 준비 상황이 '퍼펙트' 하다"고 평가했다.

호남대, 광주체고, 영주양광장 등 운영시설을 현장 점검한 폴 한센 국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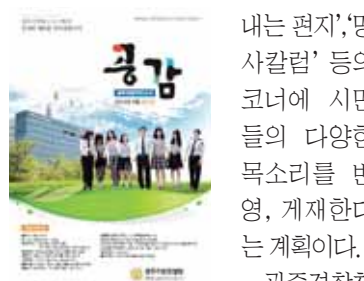
특히, 주 프로그램 진행 장소인 호남대 시설과 관련, 숙박과 체육활동 및 강의 시설이 한 곳에 집적된 점 높이 평가했다. 폴 한센 국장은 "이번 광주 방문은 협의 차원"이라며 "UN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과 광주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경찰청 월간 치안소식지 '공감' 발간

광주경찰청은 24일 월간 치안소식지 '공감'을 발간했다. 지난해 말부터 매주 제작, 방송중인 광주경찰뉴스(GPN)에 이어 경찰의 역할 추진 시책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다.

월간 공감 창간호는 A4 크기 16면으로 총 6000부가 제작돼 관공서,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과 터미널, 지하철 역 등에 배포되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등에서도 접할 수 있다.

광주경찰청은 매일 진행되는 역점 치안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경찰에게 보



내의 편지, '법사칼럼' 등의 코너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광주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알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 치안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광산구 신창동 주민센터에 발명공작소

광주의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발명공작소가 생긴다.

2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무한상상실 시범운영기관 공모사업'에 광산구의 '사이언 발명공작소'가 선정돼 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사이언'은 '과학은 즐겁다(Science is Fun)'는 뜻의 영어 문장 줄임말로, 광산구는 신창동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상상력을

발휘·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오는 7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지역 초·중학생들과 함께 오감으로 배우는 과학원리 실험·실습교실,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기법 교실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한다. 전국 50여 개의 기관이 참가한 이번 공모에서는 도서관·과학관 등 6개의 기관이 선정됐고 자치단체로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최승환기자 srchoi@kwangju.co.kr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성인	23,000	27,000	30,000	33,000
초등학생	12,000	14,000	15,000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10,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상무지구)
☎ 061-332-1111

- 150여 규모 웨딩홀
- 100여 규모 연회장
- 50여 규모 연회장
-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고백연, 각종 세미나 (70명 이상 가능)
- 홀잔치, 고백연, 각종 세미나 (40명 이상 가능)

이동금액 (취미 1인기준)
★평일 20,000원~25,000원
★주말·공휴일 25,000원

※ 대관 및 세미나 사용은 상담 후 조정가능
※ 단체행사만 가능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에경사화환 / 축하화분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엘리시아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원금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특선		정식코스요리	
참조기탕	12,000원	A코스	40,000원
생우럭탕	12,000원	B코스	50,000원
대구탕	15,000원	C코스	60,000원
생선초밥	12,000원	(1인기준 2인이상)	
특초밥	15,000원	주말 가족특선	
생선구이	15,000원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